

# “농민이 부자되고 교육·문화가 살아있는 고장만들기 온힘”



## 천마·표고·참소·곤충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지역인재육성·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고충해결 위해 노력

“농민도 부자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을 전면에 걸고 나섰던 무주군이 민선 6기 출범 2년을 지나면서 ‘산골오지’라는 지역적 한계를 ‘무주만의 자원’으로 극복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반딧불이와 농업’, ‘태권도와 관광’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소득원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딧불 농·특산물 100억 매출 달성,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4년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반딧불축제로 외유내강의 정석을, 마을로 가는 축제와 야시장, 참소·곤충산업 육성 등으로 농·산촌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무주군의 수장 황정수 군수를 만나봤다. /편집자 주

론 매출은 9억 원 상승했습니다. 표고 톱배지센터 조성(~2018)을 위해서는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참소 육성 특화사업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송아지(70두)가 태어나면서 본격화되고 있고, 곤충산업 역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기술이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생산, 가공, 전시 체험을 위한 지원 등 곤충사육농가 육성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말산장과 대도시 직거래장터, 농·특산물대축제 등이 반딧불 농·특산물 1백억 매출 달성의 토대가 되면서 올해는 150억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문화잖아요. 취임이후에도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신가요?

“인재를 키우고 문화를 꽃 피워야 살맛나는 무주가 된다”는 각오로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과 분야별 인재양성(성적 특기 장학 등), 통학택시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를 살리고 있고요. 해피 365 문화행사(명사초청 강의와 공연 등), 문화학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최북미술관(제1종 공립미술관)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지역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2015~ / 학원비의 80% 지원)는 성적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형 학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환경과 학습방법을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72명이, 올해는 여름과 겨울학기예 총 1백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 통학택시(2015~ / 이용 거리에 관계없이 회당 5백 원)는 현재 월 134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군민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무주군의 경우는 초고령사회라는 특수성도 있고 나름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위한 노력이 궁금합니다.

군민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해야 따뜻한 무주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력 농산물과 재능, 고액 기부 등을 독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 무주 운동도 전개하기 시작한 거고요, 최종 목적지는 경제·사회적 약자,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생활복지 무주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충해결, 교육, 가정과 육아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는 반딧불 다모아협동조합을 설립·운영 중이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공동생활 홀 2곳, 급식시설 4곳)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 경로식당 등을 두루 갖춘 건강증진센터와 유족과 조문객들의 편의에 맞춰 시설을 개선한 보건의원 장례식장 역시 초고령사회인 무주군의 현실을 보듬는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운영을 시작한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전 구간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천 원, 학생 5백 원)는 10월부터 진안과 장수까지 거리를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고요, 삼도봉권역(무주, 영동, 김천)이 함께 하는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201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기대가 큼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골드프로젝트로 상정되는 변화와 혁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떤 결실이 있었을까요?

지난 2년의 결실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6급 공무원 보직심사평가제 및 인사드래프트제 시행, 농업행정과 기술 분야 분리, 마을만들기 사업소 신설)하며 공직자 고충상담소( & 마을

의 편지함)를 설치해 일하는 분위기와 활력을 불어넣었고 골드프로젝트(1,111건 개선, 413억 여 원 예산절감효과)와 생생특목 토론회(부서 간 소통을 통한 업무 성과향상)를 추진해 공직자 스스로가 넓은 관념을 버리고 중단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2015 지역산업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을 비롯한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278억을 확보하는 힘이 됐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3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20억 원을 확보하고 20개 공모사업에 또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줬습니다.

공약사업은 참소육성 특화사업, 무주 내도리 종합관광개발사업 등 5개 분야 36개 사업으로 현재 20건이 이행돼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무주야일랜드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내도리권역조성사업) 등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각오 한마디 덧붙여주시죠.

민선 6기 무주 호를 띄우며 ‘무주의 주인은 무주군민’이라고 먹었던 마음은 지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 지난 2년을 뛰게 한 원동력이었고 앞으로 2년을 이끌어 갈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자연도 깨끗한 무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다져온 기반 위에 이제부터는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생산과 가공, 서비스의 단순조합이 아닌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6차 산업을 정착시킬 때 농민도 부자되는 군민 실현도,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도,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도,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전체 인구 2만 5천 여 명 중 1만 여 명이 농업인입니다. 농업·농촌을 활성화시켜야 결국 무주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지역자원을 발굴해 그에 맞는 리더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통해 소득문제 해결, 고용 창출에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소통의 리더가 되겠다는 제 의지가 있고 열정을 다해 땀 각오가 돼 있는 6백 여 공직자들의 있으니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앞으로의 발전에도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주=전문선 기자

